3.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콘텐츠산업 투자 확대 및 비대면·온라인 전환 지원

경쟁력 있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방송시장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IP확보를 전제로 하는 OTT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메타버스 등 신유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대면 서비스 중심의 문화·관광·체육 분야 소비가 급감하는 등 관련 산업·종사자들의 피해가 컸으나, 그간 오프라인 위주였던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동이 비대면·온라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관련 산업·종사자들의 피해 극복을 위하여 수요 활성화 및 금융지원 등의 투자를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활동 및 서비스 발굴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비대면·온라인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류활용 콘텐츠·소비재·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 지원

그간 한류는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확산되어 왔고, 국가 브랜드 제고와 소비재 수출 촉진에 기여하여 왔으나, 반한 정서의 존재, 대중문화에 편중된 내용 등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한류' 진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첫째, 한류 콘텐츠를 전통문화를 포함하는 전 문화예술 영역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둘째, 한류 콘텐츠와 소비재·서비스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며, 관련 행사·프로그램 등을 통한 연관산업 동반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방적 전파가 아닌 쌍방향적 교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취약·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예술인 복지 강화

국민의 문화 접근성 제고 및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상향을 지속 추진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을 확대하여 취약·소외계층 국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와 생활체육용품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창작준비금의 지속·확대를 통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제도적인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시장 회복 및 관광산업 혁신지원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국내관광 수요진작 및 방한관광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류 콘텐츠 등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코로나19 이후 여행추세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영역을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등 지역특화 관광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을 추진한다. 창업-성장-도약-해외진출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광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저변 확산과 스포츠산업 활성화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 스포츠클럽과 지역 스포츠클럽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등 공익적 목적 수행에 특화된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및 승강제 리그 확산을 통한 풀뿌리 체육 활성화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포츠 산업 융자, 창업 기업 보육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